

전남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잔걸음’

4개 분야 TF팀 운영…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총괄위 열고 선점분야 기반구축 과제 집중 발굴

전남도는 일본의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관련 분야 국산화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업해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계획’을 10월 말까지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속·화학·세라믹·레이저 등 4개 핵심소재 TF팀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대책 TF팀에서 과제를 수정·보완해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능하거나,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R&D와 기반구축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전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을 위해 기업인·국제통상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여수·순천·광양 등 화학·철강 기업인 23명과 간담회를 김영록 지사 주재로 개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수출규제 피해 접수처’(061-287-9898)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태다.

전남도는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오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주변 통상환경과 맞물려 당장은 피해가 없을지라도 장기화 되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수요처와 품질확보 및 시장개척 등을 위한 협업이 부족했고, 기존 경쟁사가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 진입을 막는 바람에 양산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일본의 경제제약을 계기로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생긴 만큼 차분하게 대처하면 수년 안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해역 ‘적조특보’ 발령 해수원, 양식장 예찰 강화

고흥 봉래면 염포~여수시 남면 안도 동측 ‘주의보’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적조 특보가 발령된 도내 해역의 양식장 관리지도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남해안에 남풍계열의 바람이 불고 적조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수온인 섭씨 24~26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생물인 규조류가 감소,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이날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해역은 고흥 봉래면 염포 종단~여수시 남면 안도 동측 종단이다. 적조생물은 여수 백야도 동측 해역에 코클로디니움(30개체/mL), 폐조디니움(1,000개체/mL)이 혼재해 출현하고 있다.

적조가 어류양식장에 유입되면 적조생물이 분비하는 점액으로 아가미 호흡기능이 저하돼 폐사를 일으키게 된다.

양식장에서선 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을 이용한 수류방제, 산소공급장치 가동, 먹이공급 중단, 적정 사육밀도 유지, 양식생물 조기 출하 등에 나서야 한다.

도해양수산과학원은 4월부터 적조발생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온 예찰반을 전남 전 해역으로 확대해 집중예찰을 펼치고 있다. 예찰 결과는 SNS 등을 통해 어업인과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적조특보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28일간이었다. 특히 해역은 여수-고흥 해역이었다.

오광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겠다”고 당부했다.

광전연, 재정분권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오늘 국회의원회관서 주제발표

광주전남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광전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재정효과와 균형발전정책과 병행한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필요조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이후엔 박재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균형발전정책, 재정분권과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혁신도시 정책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 구균철 경기도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모색’ 등의 주제발표를 한다.

광전연은 주제발표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의 재정효과와 균형발전정책과 병행한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필요조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 이후엔 박재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균형발전정책, 재정분권과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기 브리핑

“목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 확정”

박지원 “2천억 투입…목포발전 견인차 역할”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목포) 전 대표는 21일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전대표는 “목포신항만 5만평 부지에 5년간 약 2,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서부정비창이 건립되면 해경 함정들이 수리·정비를 위해 부산까지 이동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전남도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1,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00여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지역의 수리·부품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사업은 부산정비창 노후화 및 함정 수리·정비 수요증가에 따라 목포신항만에 제2정비창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추진계획이 수립돼 2년 가까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쳐 이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부정비창이 완공되면 대형함정 3척과 중소형 함정 1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해군함정의 위탁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2012년부터 8년간 서부정비창 신설 및 목포유치를 추진하면서 기재부 장·차관, 해수부 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해양경찰청장 및 해군참모총장 등과 수십 차례 조율·협의를 한 결과 결실을 거뒀다”면서 “김영록 지사, 김종식 시장과 잘 협력해서 서부정비창이 목포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 신당 위해 기득권 내려놓겠다”

전정배 “어느 누구도 당권·공천권 갖지 않아”

전정배(광주 서을) 의원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 소속 의원 중 어느 누구도 당권과 공천권을 갖지 않겠다며 제3세력 신당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제3세력 대안신당 창당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전 의원은 지난 20일 모 방송에 출연, “우선 우리 10명 의원들은 누구도 당권을 쥐지 않겠다. 또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 전권을 주면서 뒷받침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선 무기력한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유능한 새 인물들을 영입해 마음껏 활약하도록 우리 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빨리 열자”

윤소하 “가족청문회 형국·인권침해 다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가족 청문회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을 할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는 문제와 청렴성과 도덕성을



다. 상식 이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중 연구논문제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이용해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교육은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와 법감정에 배치된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며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도시를 바꾸는 밸류 크리에이터!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www.koda.or.kr